발전소 노동자 건강과 안전, 총고용 보장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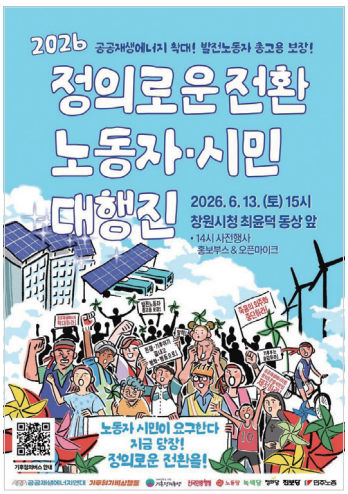
이숙견 상임활동가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하신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를 맞아 지난 5월 30일 서울 보신각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한 정부는 합의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보장 논의기구 역시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충현 대책위에 함께하고 있는 연구소는 향후에도 '위험의 외주화 중단!', '한전KPS 직접고용 쟁취!',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 모이자 창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기치 아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이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은 아래와 같이 6개의 요구안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를 종식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하나, 발전소 폐쇄 국면에 맞서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4법(공공 재생에너지법·정의로운 탈석탄법·한국발전공사법 제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을 제·개정하라!
하나, 고(故)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고,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하나, 기후 위기, 전쟁 위기로 심화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라!
하나,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구성하라!



6월 13일 오후 3시 경남 창원시청 최윤덕 동상 앞에서, 전국에서 오신 연구소 회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날 한노보연 깃발 아래 함께 모여 연구소의 요구를 담은 "발전소 노동자 건강과 안전, 총고용 보장으로부터!!" 플래카드를 들고 힘차게 행진합시다!!